



전통인문정신 연수 프로그램

평생교육시설 및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민간전문교육기관 등록기관

민족의 정서와 혼이 배어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도모합니다. 현장학습과 함께 전통사상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교양강좌로 현대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연수대상

사회지도층, 공무원·교원, 기업체, 청소년, 해외동포, 각종단체 회원 등

연수내용

강의·현장·체험으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 전문 강사진(원내연구원, 외부강사, 연수운영전문위원 현장해설)

연수기간

당일/1박2일/2박3일 과정 등 연수자 주무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능

영역별 프로그램(주문식 맞춤형 연수가능)

구분	강의	현장학습
인문정신 함양	- 선현들의 마음공부, 자녀교육 - 기록유산에 담긴 선현들의 삶 - 한국 문화유전자 등	- 퇴계선생 관련 유적지 (도산서원 / 퇴계종택 / 묘소 등) - 유교문화박물관 / 현판전시실
리더십 / 공직의식	- 선비정신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자세 - 배려와 섬김의 리더십 - 여성 리더십, 청소년 리더십	- 서애 / 학봉선생관련 유적 (옥연정사 / 충효당 / 학봉종택 등) - 영양두들마을(장계향)
전통문화 체험	- 종가문화, 제례문화, 불교문화 - 전통음식, 온주법 - 전통건축(정자와 누정 등)	- 전통마을(하회 / 군자마을 등) - 종가탐방 (퇴계 / 농암 / 학봉종택 등) - 영주 / 봉화 / 예천 / 영양지역 문화탐방
선비 / 청렴정신	- 유학사상과 선비정신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우다 - 선비의 의리정신, 청렴정신	- 서원 / 향교 (도산서원 / 예안향교 등) - 임청각 / 이육사문학관 - 퇴계종택 / 묘소
호국정신 함양	- 우리를 위해 나를 내려놓다 - 경북선비들의 독립운동 - 선비정신과 국난극복	- 독립운동현장 (경북독립운동기념관 / 임청각 이육사문학관 등) - 징비록의 현장(옥연정사 등)
체험학습		
	- 활인심방, 선비체조 - 스토리텔링 공연 - 전통예절, 한지, 하회탈춤	
	- 퇴계 오솔길(예던길) 걷기 - 연극, 전통음악 공연 - 마음을 여는 공동체 놀이	
	- 유림의 숲 산책 - 전통음식체험 (종가음식) - 영상관람, 분임토의	

객실



콘도 | 32평형(3룸)
취사와 소모임이 가능한 다용도 숙박공간



콘도 | 24평형(2룸)



객실형태

구분	특실		일반실(호텔형)		콘도형		계
	한실	양실	한실	양실	32평형	24평형	
객실수	2	2	13	18	16	12	63
수용인원	2	2	2	2	6~8	4~5	300



특실 | 양실, 특실
브라운과 황금색을 조화있게 구성하여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꾸며진 더블룸



일반실 | 한실, 양실
에스러운 전통가구와 친환경적인 전통한지로 시공된 격조의 공간
심플함과 편의성이 돋보이는 트윈룸

객실요금표

객실종류	요금(원)
양실(트윈)	99,000
한실(온돌)	99,000
특실(한실)	242,000
특실(양실)	242,000
콘도(24평형)	154,000
콘도(32평형)	209,000

VAT포함

층별안내

5	객실 501호 ~ 521호
3	객실 301호 ~ 317호
2	객실 201호 ~ 221호
1	객실 105호 ~ 108호 · 세미나실 · 인터넷정보실 · 사무실
B1	국화실(연회의실) · 식당 · 매화실

회의장·연회장

대강당 | 중강당 | 강의실 2층·3층 | 회의실 | 국화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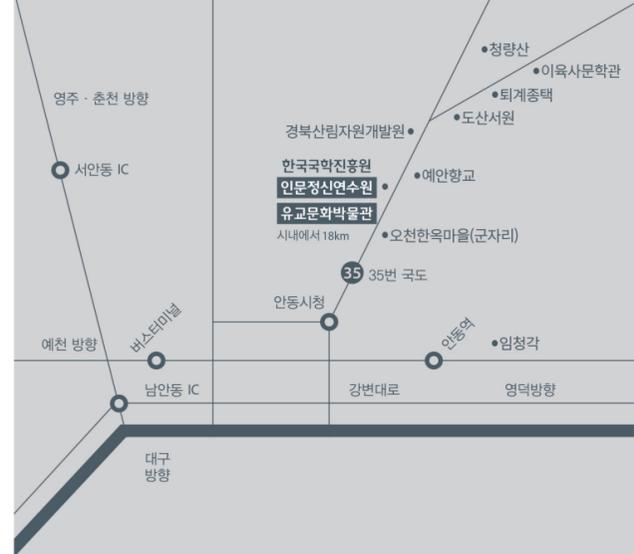


편의·부대시설 안내

5개국 동시통역 시설 완비

식당 | 야외 연회장 | 운동장(축구, 농구, 족구) | 서바이벌장 | 산책로

구분	장소	규모
연수원	세미나실(1F)	30석
	국화실(B1)	60석
	매화실(B1)	30석
	강의동(2F)	200석
	강의동(3F)	200석
본관	대강당(1F)	500석
	중강당(B1)	300석
	소강당(B1)	105석
	강의실(1F)	40석
	대회의실(2F)	40석
야외장소	별관 강의실	30석
	박물관 강의실	20석
	전망대	
	야외 공연장	
	운동장(축구, 농구, 족구)	예약선착순이용
야외장소	숙속 야외 강의장	50명
	산책로(1시간 / 30분 코스)	
	서바이벌장	
	야외연회장	
	호계서원(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오시는 길

서울 안동 동서울 30분 간격(06:00 첫차)
센트럴 2시간 간격(07:00 첫차)
대구 안동 동대구, 북부정류장에서 출발
안동 국학진흥원 노선번호 567번(서부리 국학진흥원에서 하차)

유교문화박물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09:00~17:30
입장시간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
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무료

주변관광지 승용차 소요시간

예끼마을 2분	이육사 문학관 20분
선성현 수상길 5분	청량산 박물관 20분
오천 한옥마을(군자리) 5분	임청각 25분
산림과학박물관 5분	월영교 30분
도산서원 10분	하회마을 40분
퇴계종택 15분	병산서원 50분

한국국학진흥원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인문정신연수원

대표전화 054.851.0900 Fax 054.851.0909
연수프로그램 문의 054.851.0812
www.koreaacademy.or.kr

유교문화박물관

대표전화 054.851.0800 Fax 054.851.0769
www.koreastudy.or.kr/cseum

사람의 길
대동의 꿈



유교문화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은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국학자로 기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유교문화 전문박물관입니다.

상설전시실은 유교의 실천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주제로 한 6개의 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기획전시를 통해 옛 선현들의 삶과 정신세계를 조명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안내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시며 전통문화의 멋과 향기 속에서 우리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사람다움을 실천하는 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체험프로그램 안내

- 01 30분소요/6,000원
고서만들기
- 02 10분소요/1,500원
목판인출
- 03 15분소요/5,000원
편지만들기
- 04 30분소요/10,000원
부채만들기
- 05 40분소요/10,000원
에코백체험

GUIDE EXHIBIT HALL

1 | 전시실 유교와의 만남

유교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공간
유교문화의 형성과 전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 유교 연표와 한·중·일의 유교이야기, 그리고 한국 유학의 흐름과 학맥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2 | 전시실 유교와 수양 사/람/되/기

유교적 실천론의 출발점인 공부론工夫論을 소개하는 공간
맹자의 사단설四端說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유교적 실천론의 중심인 오륜의 내용을 가상마을 모형을 통해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오륜마을'과 「활인심방」을 통해 유교의 몸공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 전시실 유교와 가족 사/람/노/릇/하/기

유교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가족문화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공간
가족의 형성과 유지 및 분화와 관련된 유물과 유교의 대표적 의례인 관·혼·상·제, 안방·사랑방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 전시실 유교와 사회 사/람/대/하/기

유학자들의 사회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함께 녹아 있는 선비의 하루를 재구성한 동작 모형에서 출발하여 서당의 풍경을 한지공예 모형으로 그려낸 서당 코너와 향약, 서원과 과거 등 조선시대 지방에 거주하던 유학자들의 사회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5 | 전시실 유교와 국가 사/람/위/하/기

현실 정치에서 유교가 수행한 역할을 조명하는 공간
효명세자의 「왕세자인학도첩」을 통하여 국가와 유교의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코너와 조선시대 관료문화를 보여주는 코너, 그리고 동궐도를 토대로 슬라이딩 비전을 통해 궁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궁궐 둘러보기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6 | 전시실 유교와 미래사회 더/불어/살/기

유교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의 가능성을 성찰해보는 공간
격동의 근·현대사를 씨줄과 날줄로 수놓은 '시간의 바다'를 지나면 유교가 꿈꾸는 대동세계가 대형화면 속에 펼쳐진다.



세계기록유산 전시체험관

